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본격화

군산시, 지역 인재 육성·교육 격차 해소 위한... 미래 교육환경 조성 새 전환점 기대

군산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나서며, 지역의 미래 교육환경 조성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시는 작년 7월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더딤에서 으뜸까지, 혁신배움의 사(4)다리, 과학이음 도시 군산’이라는 비전을 향하여 ‘돌봄에서 정주까지 이어지는 가족 중심의 정주 도시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는 교육을 매개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교육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군산 교육발전특구는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넘어, 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번 시범사업은 군산시와 군산교육지원청이 공동 추진하며, 지역사회와 학교,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협력 생태계 조성’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이를 위해 군산시는 교육 돌봄, 배움, 진로, 통합의 네가지 사다리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든든한 돌봄’을 위한 주요 추진사업 중 하나로 방학 중 ‘건강 도시

락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는 학부모들로부터 방학 중 아동들 중심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시는 군산교육지원청 지원으로 2024년 겨울방학동안 초등학교 돌봄교실 이용 학생 900여명에게 학교가 직접 선정된 양질의 건강도시락 총 2만 7,000여개를 무상 지원하여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시는 ‘쟁쟁한 배움’을 실현하기 위해 ‘과학문화융합 교육과정 운영학교 지원’을 주요 추진사업 중 하나로 선택했다.

과학적 사고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창의 융합 인재를 길러내는 것을 골자로, 각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과학X예술, 과학X스포츠 등 과학문화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는 관내 12개 고등학교에 최대 6천만 원까지 지급한다.

‘촉촉한 취업이음’ 영역은 전북 최대의 산업단지인 대덕, 연구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풍부한 진로 체험과 교육자원을 초·중·고등학교와 연계하여 학생에게 현장실습, 기업 멘토링 등 다양한 직업 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졸업 후 지역 내 안정적인 취업을

유도하는 실질적인 취업 연계형 교육 과정도 마련하였다.

미래 유망 산업인 이차전지 분야에 도전하려는 학생들의 이해도 제고와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기업이음 과학캠프’도 열린다. 이번 캠프는 총 40여 명의 군산기계공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산업 현장과 연계한 실습 중심 교육을 통해 전문 기술 인재로 양성하고자 기획되었다.

또한 ‘탄탄한 어울림’을 위한 다문화 가정·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통합지원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군산시는 이런 다각적인 사업을 통해 차별 없는 교육 환경 조성, 맞춤형 학습 지원을 제공해 누구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교육도시’ 군산을 만들어갈 생각이다.

‘우리 마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고용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실무형 일자리 경험 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 기반의 기업에서 직업 경험을 쌓게 돕는 한편 실무역량 강화와 취업 연계를 지원한다.

김현석 복지교육국장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진행되는 사업들은 군산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국립군산대, 맞춤형 전공·진로 설계 지원

‘전공 진로 가이드센터’ 출범... 원스톱 전공진로 설계 허브 역할

국립군산대학에서 올해부터 ‘전공 진로 가이드센터’ (이하 가이드센터)를 정식으로 출범하고 학생 중심의 맞춤형 전공·진로 설계를 본격 지원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국립군산대의 가이드센터는 전국 국립대 최초로 시행한 ‘전과프리(Free) 3무(無)’ 제도와 모듈형 융복합 학위과정(MCD)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핵심 기반이다.

학생들의 폭넓은 전공 선택 지원과 더불어 진로 역량 강화 및 학업 지속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가이드센터란 전담 인력이 상주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라도 전과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진로 탐색부터 전공 선택, 융복합 학습 설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전공진로 설계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자신만의 전공 설계에 관심 있는 재학생 뿐 아니라 전공 선택에 어

려움을 겪는 전과생, 휴·복학생, 편입생, 진로 미확정자 등 ‘전공설계 취약군’까지 조기 개입과 밀착형 상담을 통해 학업 설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어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가이드센터는 교수, 조교, 산배 멘토, 산업계 전문가, 미들맨(Middle Man) 등으로 구성된 ‘아카데미 어드바이저(Academic Advisor)’를 학생들과 연결하는 중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전공 선택 또는 전과 희망 학생에게는 온·오프라인으로 상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 시 산업계 전문가와의 1:1 전문 상담을 연계하여 현장 중심의 진로 설계도 돕고 있다.

한편 국립군산대는 ‘다시 새로운 대학, 더 특화된 글로벌 대학’이라는 비전 아래, 학생 중심의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학사제도 운영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군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인재 양성·지역 교육 혁신 ‘맞손’

이리여자고등학교·익산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 맺어

익산시가 이리여자고등학교, 익산교육지원청과 손잡고 인재 양성 교육 혁신에 나선다.

익산시는 13일 이리여자고등학교에서 익산교육지원청, 이리여고와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사업 도전과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고교 교육 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학교의 역량을 높여 공교육의 질적 도약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5년간 사업비 10억 원 지원 등 학교가 자율적으로 지역 특성과 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교과 연계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진로 체험 지원 △미래 유망산업 관련 전문가 특강 등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협약이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이를 교육·고교역량강화 등 기존 교육 프로그램에 지역 자원이 더해져 청소년의 학력 신장과 진로 탐색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기후대응도시숲 ‘새들허브숲’ 조성

군산시가 도심 속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누릴 수 있는 ‘새들허브숲’ 조성 사업을 이달 완료한다고 13일 밝혔다.

자연 친화적 공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해온 이번 사업은 산림청의 기후대응 기금 지원을 받아 총 5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시는 군산시 수송동 708-2번지 일원 새들공원 내 공원 미 조성지 59,837㎡에 산책로, 잔디광장, 역사관, 다양한 수목 및 초화류 식재 등을 진행했으며,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쾌적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다.

또한 다른 공원들보다 식재 비율을 높여 철쭉수, 편백 나무 등 교목 2,700주와 관목 29,250주가 심어졌다. 따라서 도심 내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식재된 수종들은 산림청이 발표한 대기오염물질 흡수 및 흡착 능력이 우수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뛰어난 수목들로 선정하였다. 시는 하반기부터 사업 시설 비용을 제한으로 설치하지 못한 벤치나 모퉁이 같은 편의 시설을 점진적으로 보강하며 설치할 계획이다. 【군산=이재훈 기자

익산 함라산, 시민의 힐링 산책길로 재탄생

야생차밭·금강을 조망하는데크형 산책로·전망대 조성

금강 물길과 한반도 최북단 야생 녹차밭이 만나는 곳, 익산 ‘함라산’이 자연과 쉼을 품은 시민의 힐링 산책길로 거듭난다.

익산시는 ‘함라산 데크길 조성사업 2단계’가 오는 6월 준공을 앞두고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완료된 1단계 사업의 연장선으로, 시민과 방문객이 더욱 가까이에서 함라산의 생태경관을 체험할 수 있도록 데크길과 전망대를 중심으로 정비된다.

2단계 사업에서는 총 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해 총연장 564m의 데크형 산책로를 조성하고 있다. 최북단 야생차나무를 더 가까이 체험하고 금강의 시원한 물줄기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방문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는 이번 2단계를 포함해 총 20억

원을 투입해 약 1.5km에 이르는 전체 데크길 구간을 세 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마지막 단계로 2026년에 추진할 3단계 사업을 통해 산책로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고, 전 구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탄탄한 숲길 네트워크가 구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20억 원 규모의 산림복지진흥원 주관 ‘무장애 데크길 조성사업’ 공모에 나선다. 함라산 자연휴양림에서 국립익산치유의숲까지 이어지는 구간을 연결해, 장애 유무나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편안하게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열린 산림 복지 공간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함라산은 익산의 자연과 문화, 치유를 잇는 생태축이자 시민 삶의 품격을 높이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자연에 가까이에서 누리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걸



을 수 있는 숲길을 조성해 익산민의 고유한 자연 브랜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달까지 함라산 임도변에 수목 심어, 꽃길을 즐길 수 있는 자연 친화형 산책 환경을 조성했다. 함라산 일대는 더욱 쾌적하고 풍성한 탐방 여건이 마련될 전망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함도문화전자대전

